

98세 고령의 나이에도 꿈을 잃지 않는다. 그에게 포기란 없다.

협회 회원No. 1 강석규 총장 인터뷰...

취재 | 제도연구실 손영선
동행 | 협회 최광주 회장



프로필

- 1913년 충남 논산 출생
- 서울대 공대 입학, 총학생 회장
- 대성중고교 설립, 교장
- 서울호서전문학교 설립
- 호서대학교 설립, 총장
- 서울벤처정보대학교대학원 설립, 총장
- 대통령 감사패, 국민훈장 모란장, 청조 근정훈장, 제1회 자랑스런 전기인 상 수상

Q 강석규 회원님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1호 회원입니다. 협회에 남다른 애착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협회에 가입하시게 된 동기 및 회원님이 생각하시는 협회는 어떠한 의미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당시 우리나라에도 일정규모이상 자가용 전기공작물에는 전기주임기술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이 있었으며 약 3,000여명의 전기기술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때 일본에는 전기주임기술자협회를 설립하여 전기기술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분위가 일고 있었다.

당시 저는 전기학회 총무국장을 맡고 있었는데 몇몇 교수들과 주임기술자들이 모여서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심을 하였고 당시 상공부(현, 지식경제부) 박용철 전기국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었고, 그것을 계기로 당시 한전 사장인 윤일중 회장을 비롯해 한국철강(주) 안재영 사장, 한국모방(주) 김선경 사장과 제가 발기인으로 동참되어 1963년 12월 14일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 협회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사무실을 확보할 능력이 없었고 정관에는 서울에 위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유지할 예산이 없어서 걱정이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근무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전기학과장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하였고 초대 회장으로는 한전의 윤일중 사장님을 모시게 되었고 협회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는 부회장이신 저와 몇몇 이사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였다.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협회의 재정상태는 비약했지만 열성은 대단하였고 곧 좋은 일이 터질듯 했으며, 우리가 전기인들에게 무엇가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했던 것 같다.

Q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교직원생활을 하셨음에도 또다시 만학의 어려움을 불사하고, 34세에 뒤늦게 서울대 공대를 진학하여 전기공학을 공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성경 잠언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젊은이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 불문하고 남녀노소 똑같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의미입니다. 늦어서 안 된다고 모든 게 다 귀찮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들 때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잘 이용해서 행복하고 가치 있게 오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꿈을 버리거나 꿈을 꾸지 않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늦었는데, 늦었는데 무슨 큰 꿈을 품느냐고 생각하지 말고, 늦을수록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면 됩니다. 제가 교직원이라는 비교적 안정적 생활을 뒤로 한 채 뒤늦게 서울대학교에 진학해 만학의 꿈을 꾀 것도 어렸을 때부터의 대학교 진학에 대한 꿈, 그리고 전기공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어 도전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전기공학은 공학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고 학생 모두가 선망하는 과에 해당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전공을 선택한 특별한 동기는 남들이 가장 원하는 곳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는 것" 이것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Q 강석규 회원님의 저서를 보면 '성공의 습관, 생각을 바꿔 보라 희망이 보인다' 등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슬로건이 묻어있는 듯 한데요 책을 쓴 동기와 저서를 통해 가장 전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원래 인생이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도전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도전을 이기기 위해선 반드시 응전해야 하며 고민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없이는 향상이나 전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통해 가장 나쁜 조건을 뒤집어서 좋은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탓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제 저서에 이러한 점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정 형편도 어렵고 머리도 그리 뛰어나지 않았으며 몸도 허약했던 제 자신을 많은 독자에게 알리므로 그들에게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꿈과 의지'를 가지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늦은 나이에든 무엇인가를 계속 찾고 추구하는 제 자신을 보여주며 늦었다고 많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고 싶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만 꿈을 접게 만들거나 하고 싶은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Q 강석규 회원님을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우리 전기인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천재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격언일 것입니다. 아무리 타고난 재주가 뛰어나 신동이란 소리를 들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가끔 신문을 보면 신동이라면 무슨 책을 외우고 수학을 풀고 피아노를 치고 한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 후 아이들이 대성 했다는 말을 별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 노력을 안 한 탓일 것입니다.

꿈과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걱정하여 시작도 못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꿈은 그 사람에게서 멀리 도망쳐 아쉬움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꿈이 확고히 다져지면 신념이 되고, 신념이 확고히 굳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지며 대담하게 실천에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많은 전기인들에게 지금부터 꿈을 확고히 다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신념을 가지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전력투구하시길 바랍니다. 꿈은 꼭 이루어 질 것입니다.

Q 강석규 회원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2년 후 제가 100세가 되는 해에는 "나의 인생관"이란 제목으로 출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나이를 먹다보니 장신건강이 육체건강을 좌우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소망하기는 모세처럼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남은 생애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순종하면서 열심히 청춘의 마을을 가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또한 거창한 계획 보다는 현재의 일에 만족하면서 지금과 같이 강의도 하고(1주일에 한번씩 조천대학교에 출근하여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체재시간에 2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책도 쓰면서 보낼 계획입니다. ◆